

한나라·민주 전대 '돈봉투 의혹' 과거엔 어땠나?

“대의원 밥값·교통비는 기본 아끼고 아껴도 수십억 썼다”

군사정권 수백억대서 참여정부 이후 수십억대로

한나라당에서 시작된 전당대회 돈 봉투 파문이 민주통합당으로 번지면서 과거 전당대회 선거운동 모습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정당문화에서 전당대회는 '돈 먹는 하마'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돈을 쓰지 않고는 경선을 치르기 어렵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 이는 여야 모두 안고 있었던 일종의 '화악고인' 셈이다.

10일 다수의 정치권 관계자들은 전당대회에 출마한 민주통합당의 일부 후보들도 한나라당과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돈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국 정당사에서 오랫동안 관행처럼 내려온 금권정치 풍토에 다 돈을 쓸 수밖에 없는 독특한 전당대회 방식에서 비롯됐다는 관측이다.

우선 군사정권 시절 대통령이

여당의 총재로 지내며 통치수단으로서 정치권에 돈을 살포했다든지, 야당 역시 금품 문화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는 이미 드러난 술한 부정부패 사건을 통해서도 익히 알려진 금권정치의 폐해다. 때문에 과거 총선과 대선에서는 여야 후보나 당 총재·대표가 작게는 수천억원에서 많게는 수조원을 풀었다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 이야기다.

과거 전당대회는 불특정 다수가 유권자가 된 일반 공직선거와 달리 1만~2만명 내외의 대의원이 유권자가 됐다. 또 이 대의원은 자신들의 선출권을 사실상 갖고 있는 지역위원장들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었다. 따라서 지역위원장의 성향을 분류해서 자금을 배분했고 그 이하의 하부조직에도 교통비나 식사비 등의 명목으로 상당액의 자금이 풀려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수십만 명의 유권자가 있다면 돈이 당락의 관건으로 작용하지 못하지만 전당대회는 1만~2만명의 대의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다”며 “조합원 수가 한정된 조합장 선거가 금권선거로 치러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과거 전당대회에는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돈이 풀렸다”고 말했다.

물론 참여정부 이후 이 같은 관례는 약화하면서 돈의 규모는 크게 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과거 전당대회와 수백억의 규모였다면 수십억대로 떨어진 것이다.

하지만, 당권후보들은 길게는 1년 이상 기간을 두고 지역위원장과 대의원을 접촉하기 때문에 전국을 순회하는 과정에서 고비용 구조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전대 출마 경험이 있는 한 의원은 “지역별로 수십명의 대의원을 만나면서 밥값을 내는 것만 해도 부담이 만만치 않았다”며 “아끼고 아껴도 최소 10~20억원이 들어간다”고 털어놨다.

일부 지역위원장이나 지역의 조직자들이 먼저 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전대 캠프에서 핵심역할을 맡았던 한 인사는 “지역의 조직자들을 특별로 임명하는데 이 사람들이 대의원을 불러모으거나 포섭하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여야 약세지역, 즉 한나라당의 경우 호남권, 민주통합당의 경우는 영남권의 대의원을 일부가 금품 살포대상이었다는 '전언도 있다.

한 중앙당 당직자는 “불모지에서, 열악한 조건 속에서 정당생활을 하고 있는 당원들은 당내 선거에서 어느 정도 자금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는 분위기가 과거에는 일반적이었다”고 말했다.

/*박지영기자 jkpark@kwangju.co.kr



10일 전북 전주대학교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전북도당 개편대회.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합동연설회에서 후보들이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호남표 결집... 박지원 3강 형성 관심

시민의 힘 커진 민주통합 전대 중간 분석

한국노총 '몽치표' 향배 등 중요변수로

민주통합당의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한 국민선거인단 모바일 투표가 지난 9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호남 대표 주자를 자임하고 있는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오는 15일 전당대회에서 어떠한 성적을 거둘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전당대회 당권 구도는 60만이 넘는 시민선거인단이 참여하면서 한 치 앞을 예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당초, 민주당 내외에서 예측됐던 한명숙·박지원·문성근 후보의 3강 구도가 사실상 무너지면서 그 누구도 당권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명숙·박지원·문성근 후보가 각기 친

노와 호남, 시민사회세력의 지지를 받으면서 지도부 입성은 가능하겠지만 어떠한 성적을 거둘 것인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다.

일단 박지원 전 원내대표의 경우, 호남표의 결집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인 2표제의 특성상,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당권 후보군 가운데 유일한 호남 후보라는 점에서 1표를 밀어주고, 타 후보를 선택하는 경향이 확산하는 것이다.

일부 광주 국회의원들이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아닌 타 후보 지지 의사를 보이고 있으나 대의원과 당원들은 “그래도 호남 묶음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반응이다.

광주지역 모 민주통합당 대의원은 “박 전 원내대표가 통합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을 일으키기는 했지만 그래도 민주통합당 지도부에 호남 인맥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특히, 박 전 원내대표는 풍부한 국정경험 등을 토대로 총선 및 대선 정국에서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호남표 결집이 박 전 원내대표의 선전을 담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60만이 넘는 국민선거인단에 정봉주 팬클럽, YMCA, 백만 민란 등 각종 단체의 몽치표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주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박 전 원내대표를 지지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관측이다.

그러나 또 하나의 강력한 몽치표인 한국노총 조합원 선거인단의 경우 손학규 전 대표의 영향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막판 '손심'의 선택이 결정타

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박 전 원내대표 측에서는 한국노총 등에 “풍부한 국정경험 등을 토대로 총선과 대선 승리를 이끌겠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일각에서는 박 전 대표가 특유의 진화력을 바탕으로 박영선 후보는 물론 타 당권주자들과의 물밑 연대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진보 성향 후보들의 집중적인 배제투표만 이뤄지지 않는다면 박 전 원내대표의 3위 진입은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이라며 “특히, 박 전 원내대표가 3위 밖으로 처질 경우, 기존의 민주계와 시민사회세력의 균형이 무너지고 호남의 정치적 위상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빛의만평

- 김중두



창피스러워서 원...

민주통합 '전대 돈봉투' 자체 조사 난항

민주통합당(이하 민주당)이 오는 15일 열리는 전당대회 당권주자 돈봉투 제공 의혹사건에 대해 자체 진상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이를 해결할만한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지 못해 조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 10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돈봉투 의혹 진상조사단으로 부터 1차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조사시간 부족

등 이유로 보고회의를 오후로 연기했다. 당 공명선거분과위원장인 임내현 전 광주고검장이 간사를 맡은 진상조사단은 돈봉투 의혹을 규명할만한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채로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새 지도부 경선에 출마한 한 후보가 지난달 26일 열린 예비경선을 전후해 영남권 지역위원장들에게 적게는 50만원, 많게는

500만원의 돈 봉투를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진상조사단을 꾸렸다. 진상 조사단은 복수의 팀을 구성한 뒤 부산과 대구 등으로 내려가 영남권 지역위원장을 면담하는 방식으로 철야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아직 특정후보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진술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상 조사단 진술 확보 못해 박지원 '철저한 진상조사'를

말했다.

한편, 박지원 후보는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저도 후보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의혹의 중심에서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저로서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당의 진상조사를 지켜보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서 사실 여부를 밝혀내는 것이 당에 가장 좋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대한민국입니다

세기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탁월하지 않으면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기보청기는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완벽한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세기보청기가 여러분을 행복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star.co.kr

전국점망

서울 삼일로점(삼일로점) 02-2276-0587-9, 강남점(강남고교점) 02-3477-5110, 종로점(종로점) 02-733-0220, 송파점(송파역점) 02-419-3388, 경기 안양점(안양점) 032-421-2288, 부평점(부평역점) 032-617-5110, 수원점(수원점) 031-246-5110, 의정부점(의정부점) 031-821-6655, 안양점(안양점) 031-469-0110-1, 평택점(평택점) 031-658-5110, 용인점(용인점) 031-336-1090, 오산점(오산점) 031-378-4183, 부천점(부천점) 032-229-4400, 남양주점(남양주점) 070-823-9803, 부산 서면점(서면점) 051-818-8800, 서면점(서면점) 010-0016, 남포동점(남포동점) 051-256-7200, 울산 울주점(울주점) 052-288-2283, 경남 마산점(마산점) 055-251-0360, 진주점(진주점) 055-745-4870, 대구 동문점(동문점) 053-425-4440, 삼척점(삼척점) 053-425-7576, 경북 포항점(포항점) 054-244-5110, 인동점(인동점) 055-659-2288, 광주 광주점(광주점) 02-225-5110, 광주점(광주점) 02-695-4477, 전남 순천점(순천점) 061-752-8845, 전북 전주점(전주점) 063-252-5722, 군산점(군산점) 063-346-7188, 익산점(익산점) 063-838-6200, 남원점(남원점) 063-832-3626, 대전 대전점(대전점) 042-254-5110, 대전점(대전점) 042-222-3388, 대전점(대전점) 042-255-9300, 충남 천안점(천안점) 041-553-2888, 광주점(광주점) 041-852-5110, 충북 청주점(청주점) 043-254-5110, 대전점(대전점) 043-652-1414, 강원 강릉점(강릉점) 033-647-0588, 춘천점(춘천점) 033-253-5110, 제주 제주점(제주점) 064-753-4358

세계적 권위의 인증! FDA허가!

FDA 미국 식품의약국 FDA허가 인증

ISO 9001인증

ISO 13485인증

CE 0120 유럽공통체 CE마크 인증

GMPC 의료용구 제조업체

상담전화

1588-8499/080-222-0100

세기보청기 대리점 사업본부 문의전화 021538-9388